



화천대유(火天大有)와 지산겸(地山謙)



박재희
인문경영원 대표

- 성균관대 철학박사
- (전)포스코 석좌교수
- (전)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
- 인문경영원 대표
- 흥천 Salon In Moon 대표

주역(周易)은 변화의 철학이다. 역(易)은 '변화'란 뜻이며, 어떤 상황이든 결국 바뀌어 다른 국면으로 전화(轉化)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달이 가득 차서 보름달이 되면 바뀌어 기울기 시작하고, 달이 가장 작아지면 변화하여 점점 커지는 자연의 변화 원리가 주역의 핵심 철학이다. 자연의 변화 원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일 역시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영원히 좋은 일도 없고, 영원히 나쁜 일도 없다. 행복은 불행으로 변화되며, 불행은 행복으로 전화되어 이어간다. 그래서 주역 64괘 중에 어떤 괘를 뽑던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화천대유(火天大有)〉

주역 64괘 중 14번째 괘의 이름이다. 주역의 '화천대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 괘이다. 형상(形象)은 태양(火)이 하늘(天) 위에 떠서 세상

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모습이다. 세상 만물은 태양의 빛을 받아 생육 성장한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大) 소유(有)하고 있다. 괘상(卦象)과 괘명(卦名)만 놓고 보아도 이 괘는 주역 64괘 중에 순위에 드는 길한 괘다. 성공을 원했던 사람이 이 괘를 만나면 성공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나려면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 열정을 불태우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혼자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이 나의 꿈을 함께 하여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인간은 꿈의 공유를 통해 다른 어떤 존재보다 강해지고 우월하게 된다.

〈천화동인(天火同人)〉

주역의 13번째 괘의 이름이다. 화천대유 바로 앞에 있는 괘다. 형상(形象)은 하늘(天) 아래 해(火)가 지고 있는 모습이다. 하루로 따지면 낮이 지나고 저녁으로 다가가는 황혼이 질 무렵이다.

어두워지는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동인(同人)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사를 도모(圖謀)하고 있다. 들판에 모인 사람들이 장애물을 넘어 저 밝은 세상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함께 모여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은 바로 앞의 12번째 괘가 딱 막혀 있다는 뜻의 비(否)괘이기 때문이다. 이런 꿈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성공이 '화천대유'다. 큰 성공 뒤에는 반드시 여러 사람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한 후에 뒤처리다.

〈천화동인-화천대유〉

들판에 사람(人)들이 함께(同) 모여있다. 하늘의 해는 떨어지고 있어 꿈을 함께 모의하고 실현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게다가 세상은 딱 막혀 불통이다. 밝은 세상을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저 험난한 강을 건너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 드디어 날이 밝았다. 태양(火)이 하늘(天) 위로 떠올랐다.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다. 세상 사람들이 힘을 합쳐 도와준다. 드디어 모든 것을 성취하였다. 이제 바라던 꿈을 모두 이루고 크게(大) 성공(有)하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이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었으니 더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성공은 곧 실패로 이어지고, 행복은 다시 불행으로 기우는 법, 다만 이런 내리막길의 변화를 막을 방법이 있다. 바로 겸손이다. 그래서 주역의 15번째 괘는 '겸손'의 괘이다.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산겸(地山謙)〉

화천대유의 다음 괘 15번째 괘는 지산겸(地山謙) 괘다. 땅(地) 아래 산(山)이 있는 형상이다. 원래 산은 땅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이 땅 아래에 처하고 있으니 군자의 겸손함의 처신이다. 성공은 겸손으로 이어져야 한다. 성공에 자만하고 교만해지면 결국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 지산겸 괘의 핵심은 유종(有終)의 미(美)다. 성공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처신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늘은 자신을 내려놓고 아래로 흘러야 세상에 고루 빛을 주고 비를 내린다. 땅은 자신을 낮추어야 비로소 하늘로 상승하는 에너지로 변한다. 칭물평시(稱物平施)는 겸손함을 이루기 위한 원리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균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많은 돈을 벌었으면 잘 써야 균형을 이룬다. 성공은 나누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 도전과 나눔은 지산겸 괘의 칭물평시의 기업가 정신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그 성공을 잘 나눌 때 비로소 평형의 성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도전과 성공, 그리고 겸손과 나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아름답고 행복한 결과를 만난다. 주역에서 지산겸 괘 다음에 나오는 괘가 16번째 뇌지예(雷地豫) 괘다.

〈뇌지예(雷地豫)〉

우레(雷)가 땅(地) 위에 내리치고 있는 형상(形象)이다. 기쁜(豫) 소리가 대지에 울려 퍼진다. 예(豫)는 기쁜 소리다. 성공하고, 그 성공에 머물지 않고 겸손하게 대처하였으니 결국 기쁨을 만



나는 것이다. 기쁨은 음악이 따른다. 땅 위에서 울려 퍼지는 우레는 음악의 아름다운 소리와 닮았다. 참 아름다운 결말이다.

주역은 그야말로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책이다. 그만큼 처한 상황과 시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는 주역의 철학은 결국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잠깐 방심하면 행복과 불행은 완전히 뒤바뀌고, 대박과 쪽박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同人), 그 뜻을 이루어 크게 성공하였으나(大有) 그 성공에 머물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謙) 즐겁고 행복한 결과(豫)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역의 13번째 천화동인, 14번째 화천대유, 15번째 지산점, 16번째 뇌지에 괘의 변화 흐름이다.

인간의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다. 권력의 정점에 이른 사람도 처신을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실패의 저점에 이른 사람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오히려 그 실패가 참 고마운 추억이 되기도 한다. 저녁에 일을 도모하여 그다음 날 성공을 이루고, 성공에 머물지 말고 겸손하게 처신하면 결국 기쁜 상황이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주역의 변화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로지 성공에만 방점을 찍은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성공(成功)은 공(功)을 이루었다(成)는 뜻이다. 그러나 그 이룬 공을 잘 유지하려면 겸손함밖에 없다.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사회를 위해 나누고, 함께 하였다면 그 성공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돈을 벌어 재벌이 되고, 권력을 얻어 나보다 위에 서더라도 그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며 욕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공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였으니 그 성공은 내가 독점해야 한다는 생각,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파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KIIF**